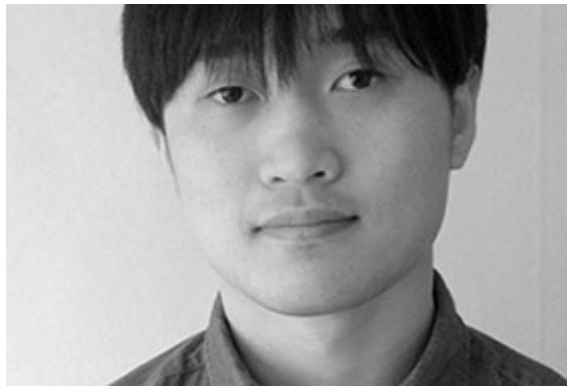


000

0000000 0000 00

0 0 0, 000000000 000 000 **2018** 000 0000 00000 000 00000 000000. 0
0000000 0000 000000 000 000 000 00000 00000 0000 000 000 00 0 00
0 0000 000000 0000 000000 000000. 0 00 0 0, 0000000 **3.0** 00 **2018** 0
000 0000 00 000 000000.



0000 0000000000 000000 00000, 0000000000
0 000000 00000000 00000. 0000 00000000 00
0 000 000 00000000 00000. 00 00000 0000
0 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0 00000
000000. 00 00 000 000 000 000 000, 00,
0000 000 000000000 0000 00 0000 00000 00
00, 00000 00000 0000. 0000 00000 00 0000
0000 00 0000 00, 0000000 0000 00 00 00

00 0000000, 00000 0000 00000 0000 00. 0000 0000 00 00000 0000000 0000 00
00000000 0000 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Message_캔버스에 유채_24x32cm_2016



Baseball Stadium_캔버스에 유채_27.3x40.9cm_2017

□□□□ □□□□ □□ □□ □□□ □ □□, □□ □□□□ □□□ □□. □□ □□□ □□ □□ □□□□ □□□□, □□ □□ □□ □□ □□□ □□ □□.

Q. □□□□ □□

A. <Afterimage>(□□□□ □□□□□, 2017)□ □□□□ □□ □□. □□□ □□□ 2015□□ □ 2017□□□□ □□□□ □□□ □□□, □□□ □ □□□□□ □ □□ □□ □□□ □□□ □□□□. □□ □□ '□□□□□□(Afterimage)'□ □□ □□ □□□□ □□□ □□ □□□□, □□□ □□□□ □□□□ □□□ □□□ □□□.



개인전 《Afterimage》 전경_스페이스 윌링앤딜링(서울)_2017

Q. □□□ □□, □□, □□□□ □

A. □□□□ □□ □□ □□ □□□ □□□ □□□□. □□ □□□□ □□ □□□□ □□□, □□□□□ □□ □ □□, □□, □□□ □.



무제_캔버스에 유채
30x30cm_2016



무제_캔버스에 유채
32x24cm_2017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_캔버스에 유채
24x32cm_2016

Q. 이 세 작품은 각각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작가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설명하십시오.

Q. 이 세 작품의 색채 구성과 조화를 설명하십시오.

A. 이 세 작품은 각각 다른 색채를 사용하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밝은 녹색과 흰색을 사용하여 신선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 작품은 따뜻한 갈색과 녹색을 사용하여 자연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세 번째 작품은 차분한 녹색과 파란색을 사용하여 차분하고 내성적인 느낌을 줍니다. 작가는 색채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관객에게 다양한 해석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_캔버스에 유채
53x72.7cm_2016



혼자만의 것_캔버스에 유채
45.5x53cm_2016



기댄 남자_캔버스의 유채
33.3x24.2cm_2017

Q. 이 세 작품의 공간 구성과 시선 처리를 설명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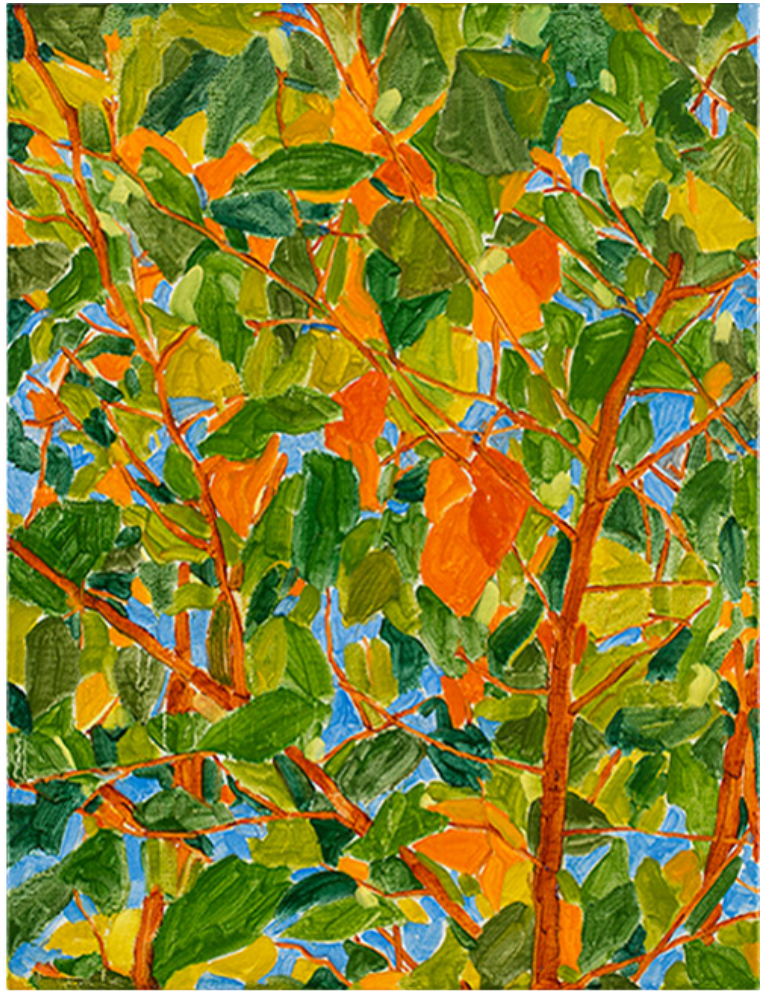
A. 이 세 작품은 각각 다른 공간 구성과 시선 처리를 사용하여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넓은 공간을 사용하여 billboard의 규모를 강조하고, 시선은 billboard를 향해 집중됩니다. 두 번째 작품은 주차장의 격자 구조를 사용하여 차를 중심으로 시선이 모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은 좁은 복도를 사용하여 인물에 대한 시선이 자연스럽게 모이도록 구성했습니다. 작가는 공간과 시선을 통해 이야기의 맥락을 전달하고,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제_캔버스에 유채_31.8x40.9cm_2018



무제_캔버스에 유채_31.8x40.9cm_2018



무제_캔버스에 유채_40.9x31.8cm_2017

Q. □□ □□□ □□ □□, □□□?

A.

